

군산시 '좋은 일자리' 1만7000개 만든다

민선 7기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지역상권·고용 안정 청년·신산업·시민밀착·창업·맞춤형 등 '5대 전략' 추진

군산시가 총 1만7000개의 지속할 수 있는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4개년 일자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31일 군산시에 따르면 이번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은 5대 전략, 17대 추진과제, 39개 실행과제로 지역 상권과 고용을 안정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했다.

5대 전략은 청년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는 ▲청년 일자리 ▲신산업 일자리 ▲시민밀착 일자리 ▲창업 일자리 ▲맞춤형 일자리 제공 등이다.

청년 일자리는 청년고용률이 28%로 전국 평균 청년고용률을 크게 밀어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조례로 고용 활성화 기반 마련과 청년센터 조성, 청년수당 지급 등 전반적인 청년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신산업 일자리는 오는 2022년까지 시민이 직접 투자하는 상생 구조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추진으로 건설 일자리와 전문 기업 유치, 전문인력 양성을 함께 추진하고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GM 군산공장 활용방안 마련으로 지속할 수 있는 일자리 생태계를 만들고 미래 산업에 대비한다.

시민밀착일지리는 골목상권을 살려 일

자리를 창출하는 전략으로 군산사랑상품권 운영을 핵심 사업으로 상권 활성화 재단 설립, 스마트 로지스틱센터 건립 등 지역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대기업으로 몰리는 소비자의 소비 수요를 지역민의 이익으로 환원시켜 기존의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운 자립형 일자리를 만들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창업일지리를 창출하기 위해 올 상반기 개소를 앞둔 창업지원센터를 창업플랫폼으로 구축하고 기술창업, 작은창업 등 창업생태계를 조성해 1인 장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의 고용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맞춤형 일자리 전략은 공공일자리 근로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자활근로 등 사회적 배려 대상으로 하는 공적 일자

리를 확대 추진하고, 장애인·여성·노인 일자리 등 계층별 특화 일자리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특히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 일자리는 올해부터 연간 5000여명 선발하며, 노인에게 적합한 취업·창업형 일자리 사업을 발굴해 더욱 생산적인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 지원센터도 설립할 방침이다.

시는 전략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으로 민선 7기가 마무리되는 오는 2022년까지 지속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 1만 7000개를 창출하고, 고용률(15세~64세) 61%를 달성해 선순환 자립경제를 바탕으로 한 일자리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유근기(맨 오른쪽) 곡성군수가 국도 개선 사업과 관련 국토부 관계자를 면담하고 있다. <곡성군 제공>

곡성 국도 27호선 구간 '국도 위험구간 개선사업' 포함

곡성군은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의 '국도 위험 구간 개선사업' 전국 8개 사업대상지에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곡성의 국도 27호선 구간이 포함됐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사업 구간은 국도 27호선 곡성군 석곡 3개 농공단지를 진입하는 구간선도로 2차선 도로다.

이 도로는 급호타이어 곡성공장곡과 곡성군 3개 농공단지 진입하는 구간선도로 3차선 도로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선형이 불량하고, 급경사 구간이 많아 농번기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곳으로 꼽힌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중 하나로 선정된 '국도 위험 구간 개선사업'에는 총 8개 시·도별로 1개씩 사업대상지가 반영됐다.

총연장 24km에 국비 1200억원을 투입, 2차로 선형개량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6월 실시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다.

곡성군에서도 사업이 착수되면 편입토지 매입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익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지부진'

9월까지 유예기간...현재 562곳 중 8곳 그쳐

무더기 행정처분 우려

익산시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31일 익산시에 따르면 정부 방침에 따라 2013년 2월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축사를 법적 요건에 맞도록 주변 정비 등을 통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3월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의 무허가 축사 중 일정 규모이상의 축사에 대해 지난해 3월까지 적법화를 추진했다.

이 보다 규모가 작은 축사는 올해 3월과 오는 2024년 3월까지 2단계와 3단계로 나눠 적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익산지역의 무허가 축사는 모두 582곳으로 지난해 3월 21일까지 적법화를 마친 대상 축사는 22곳에 그치고 있다.

수 백 곳의 무허가 축사가 적법화에 나서고 있지 않음에도 익산시의 소극적 행정으로 상당수의 무허가 축사가 행정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시는 적법화 참여를 위해 오는 9월 27일까지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지만 이를 이행하는 축사는 562개 축사 중 8곳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무허가 축사들이 적법화에 나서지 않으면 유예기간 후 자진 철거는 물론 이행강제금 부과, 강제 철거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상황에 놓여 시의 대응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익산시 관계자는 "적법화에 나서겠다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582곳으로 이행을 마친 축사는 22곳이다"면서 "건축·환경·개발행위 부서가 참여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을 통해 농가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테크윈·테크윈에너지, 새만금에 205억원 투자 협약

조선업 기자재 제조업체인 테크윈과 수상 태양광 부유체 생산업체인 테크윈에너지가 새만금에 205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최근 군산에서 협약식을 했다.<사진>

테크윈은 2021년까지 80억원을 들여 새만금 산업단지 2만6294㎡ 부지에 공장을 짓고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등을 생산한다.

선박평형수는 선박의 중심을 잡기 위해 선박에 실려 있는 물로, 환경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처리장치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테크윈에너지는 테크윈의 자회사로, 2023년까지 125억원을 들여 새만금 산업단지 1만9900㎡ 부지에 공장을 건립한다.

공장이 정상 가동되면 모두 100명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김승일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투자 협약식에서 "투자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 군산시와 함께 모든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남원시, 설 연휴 민생안전 종합대책 추진

남원시가 설 연휴기간 시민과 귀성객들의 편안한 명절을 보장하고자 '설 명절 대비 민생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남원시에 따르면 2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는 종합대책은 안전사고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소외계층 나눔, 도로정비, 교통안전, 비상진료 및 보건위생, 민원처리 등

8개 분야로 나눠 추진한다.

시는 안전사고를 대응하고자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종합상황실은 종합대책 기간 중 7개 반이 꾸려져 24시간 운영된다.

종합상황실에서는 각종 민원의 신속히 처리와 재난과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전통시장 이용권페인과 온누리 상품권 구매·이용 홍보를 갖는다. 수도권 직거래 장터를 열어 농수특산품 직거래 활성화에도 힘을 예정이다.

시는 명절기간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특별교통대책반도 운영한다. 터미널 등 주요 정차 구간에 교통정리 요원을 배치하고, 공영주차장을 개방해 귀성객과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연휴기간 중 서울과 남원을 왕래하는 고속버스(50회) 운영과 임시열차 상·하행선 하루 3회 운영 등 교통 수송력을 높인다.

응급 의료기관(남원의료원), 보건지소·보건진료소 등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을 지정해 환자들의 응급진료에 나선다.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119급급상황관리센터,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구례군, 지리산케이블카 사업 재추진 서명운동

구례군이 수년째 답보 상태인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서명 운동에 나선다.

구례군은 오는 5월 31일까지 군민, 출향 향우 등을 대상으로 '구례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위한 범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구례군은 지리산 천은사~성삼재 구간을 관통하는 지방도 861호선의 차량 통행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산림 생태계 훼손,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 등이 심각하며 케이블카 설치가 환경보호를 위한 대안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도로가 급경사사이다가 낙석으로 인한 재해 위험도 있는 만큼 구례군은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유치하면 지리산 관통 도로를 폐쇄하고 자연생태계 복원에 나설 방침이다.

구례군은 국립공원계획변경 신청 시 최종 서명목록을 환경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구례군은 1990년대 후반부터 지리산에 3.1km 길이의 케이블카 사업을 유치하려고 경남 산청·함양, 전북 남원 등지와 각축전을 벌였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고창군 '2019 군민과 공감대화' 마무리

고창군이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2019 군민과 공감대화'를 마무리했다.

31일 고창군에 따르면 유기상 군수가 지난 16일 고창읍을 시작으로 14개 읍·면을 순회해 진행한 공감대화가 공음면을 마지막으로 모두 끝났다.

이번 군민과 대화에서는 2019년 달라지는 시책(농기계 배달서비스 등), 3대 현안인 북부지산업, 황토배기우동, 고수 산업단지에 대한 유 군수와 국·과장들의 설명으로 군민의 궁금증을 해결했다.

이번 대화는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사전 시나리오 없이 진행됐다.

이번 대화에서 군 발전방향, 공공사항, 시책 등 총 150여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됐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농기계대사사업 소 기계 반납시간 연장(성송), 가축분뇨 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따른 보상(대산), 다자녀 우대카드제 도입(심원), 경로당 평지 출입로 설치(신림), 할매배우, 병바위 주변 관광자원 개발(아산) 등이다.

유기상 군수는 "평이근민(平易近民)의 자세로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군민이 원하는 일을 군민이 감동할 때까지 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kwangju.co.kr

그린궁 홈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홈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